

프랑스어 기본어휘의 사용상황 온톨로지 구축

이성현 · 고길수[†]

서울대학교

Constructing an Ontology of the Usage Situations of the French Basic Vocabulary

Seong Heon Lee & Kilsoo Ko[†]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how the process of constructing, for a more effective use of the French basic vocabulary in education and evaluation, an ontology containing information on the grammar and the usage situations and its corresponding utility. The researchers show the background and the necessity of the study, and likewise explain the construction of the ontology through the three following steps: (1) review the adequacy of the words listed in A-level *Référentiels*, revise the list, and describe in detail the grammar of these words; (2) examine and classify situations in which the basic words are used, and make a database of the usage situations and their typical dialogue samples; and (3) implement the mapping of the two results, and build an ontology of the grammar and the usage situations-typical dialogue samples for the French basic vocabulary. Finally, the researchers show how the ontology can be used in education and evaluation.

Keywords: French basic vocabulary, grammatical information, usage situation ontology,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lexicon-grammar, object class

1. 서 론

이 글은 프랑스어 기본어휘의 사용상황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과정과 그 결과의 활용 방안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리 온톨로지가 프랑스어 기본어휘의 문법정보와 실제 사용과 관련한 상황 정보를 체계적으로 담은 종합적 성격의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 3049877).

** 줄고를 읽고 귀중한 의견을 주신 세 명의 심사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이 논문의 제1저자는 이성현, 교신저자는 고길수이다.

[†] Corresponding author: kilsooko@yahoo.com

DB로서 프랑스어 기본어휘의 교육과 평가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기본어휘란 『유럽공통참조기준』¹⁾에 따라 초급 프랑스어 교육용으로 선정된 어휘들, 즉 A1~A2 등급의 『참조지침』²⁾에 제시되는 어휘들이다. 기본어휘의 문법은 이들 어휘의 문장 내 쓰임에 관한 정보로서 분포속성과 변형속성, 결합속성을 포괄하고, 기본어휘의 사용상황이란 이들 어휘가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을 말한다. 예컨대 réserver ‘예약하다’나 annuler ‘취소하다’ 같은 어휘들은 공연이나 호텔, 식당의 예약 및 취소, 항공권/승차권의 예약과 취소 상황에서 흔히 사용될 것이고, neige ‘눈’, froid ‘차가운’, beau temps ‘맑은 날씨’ 등은 기상정보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빈번히 사용된다. 이처럼 어떤 어휘가 빈번히, 그리고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을 해당 어휘의 사용상황이라 부르고 한다.

각 어휘들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 그리고 어떤 단어들과 함께,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모르고서는 해당 어휘를 실제 상황에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어휘의 문법정보와 사용상황 정보를 상세하고도 체계적으로 기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기본어휘 관련 DB의 구축이나 이를 위한 연구 성과는 국내에서 모두 미미한 실정이다.

사실, 『참조기준』의 출간 이후 수행된 수많은 연구의 대부분은 『참조기준』과 『지침』을 활용한 교육·평가용 교재 혹은 평가서 개발을 위한 것이었고³⁾, 『참조기준』과 『지침』의 내용 자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⁴⁾. 예컨대 최초로 구축된 B2 『지침』에 제시되는 어휘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등급의 어휘들, 즉 A1, A2, B1의 어휘들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지침』의 어휘 제시 방식도 교육 및 평가에 활용이 용이하도록 대폭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지침』의 어휘들이 단순 목록의 형태로만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화 의도를 분류한 기능(fonctions)과 의사소통에서 다루어지는 의미범주와 주제를 구분한 일반개념(notions générales) 및 특수개념(notions spécifiques)이 함께 명시되고는 있으나, 이들 정보는 어휘들을 실제로 사용하는 데에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어휘들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 그리고 어떤 단어들과 함께,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모르고서는 해당 어휘를 실제 상황에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유럽 연합의 발족과 『참조기준』의 발

1) *Cadre européen commun de référence pour les langues*, 이하 『참조기준』.

2) Béacco et al. (2006, 2007, 2008), 이하 『지침』.

3) 이러한 성격의 연구들로 Rosen (2009), Rosen & Robert (2010), Thomas (2008)를 들 수 있다.

4)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참조기준』과 『지침』에서 제시된 어휘의 적절성 문제를 다루는 연구 몇 편이 있을 뿐이다. Cf. Kusseling (2012), Kusseling & Lonsdale (2013), Ko & Lee (2018).

간 이후 적지 않은 논문들이 발표되었으나, 대부분이 언어정책의 관점에서 다루거나 그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교수법 개발 등 교육과 평가에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에도 앞에서 지적한 것과 동일한 문제가 관찰된다.

우리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크게 다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 ㉠ A1과 A2 등급의 『지침』에 제시되는 기본어휘들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목록을 수정, 보완하고, 이들 어휘의 사용에 관한 문법정보를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한다.
- ㉡ 기본어휘들의 의미를 고려하여 이들이 실제 사용되는 상황들을 검토·분석, 유형화하여 사용상황 체계를 수립한다. 또한 이와 함께 사용상황에서 기본어휘가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사용 사례들로 각 사용상황의 대화세트를 구성한다.
- ㉢ 상기 두 작업의 결과물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연동 체계를 구축한다. 즉 기본어휘들의 실제 문장 내 쓰임에 필요한 문법과 그 사용상황, 그리고 그 상황 내에서의 실제 사용사례를 연계하는 기본어휘의 사용상황 온톨로지를 구축한다.

이들 세 부분 중 ㉡과 ㉢의 과정이 이 글의 중점적 논의 대상이다⁵⁾. 즉 여기서는 기본어휘의 사용사례들을 담은 사용상황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기본어휘의 문법정보를 담은 DB와 연동시키는 과정과 그 결과물인 기본어휘의 사용상황 온톨로지의 활용 방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부분의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간략히 소개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다.

2. 기본어휘의 목록 확정과 문법정보 DB구축

2.1. 기본어휘의 목록 확정

기본어휘의 사용상황 온톨로지는 이에 수록될 기본어휘 목록을 확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에 우리는 A등급 『지침』의 어휘들을 기본어휘로 채택하되, 두 차례에 걸친 적정성 검증을 통해 그 목록을 수정, 보완하였다(Ko & Lee, 2018, 2019). 여기서는 그 개요와 결과만을 간략히 제시하기로 한다.

첫 번째 검증은 두 가지 기준을 토대로 수행되었다(Ko & Lee, 2018). 하나는 어휘의 사용빈도이고 다른 하나는 어휘가 중복 선정된 등급의 개수이다. 이들이 기준으로 채택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어휘의 사용빈도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많이 사용될수록 기본어휘로서의 적정성 또한 높고, 이와 반대로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되거나 전반적으로 사용

5) ㉠과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Ko & Lee (2018, 2019) 참조.

빈도가 낮은 어휘는 우선적으로 학습할 필요성이 낮다고 볼 수 있기에 검증의 기준으로 채택되었다).

한편, 한 어휘가 몇 개의 등급에서 중복 선정되었는가가 검증의 기준으로 채택된 것은 『지침』의 어휘 목록이 갖고 있는 문제 때문이었다. 이론적으로 하위 등급에서 선정된 어휘는 모두 상위 등급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침』의 어휘 목록은 그렇지 않다. 이는 『지침』의 어휘들이 일관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선정되고 등급을 부여받고 하지는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지침』은 이와 관련하여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몇 개 등급에서 선정, 제시되고 있는가는 기본어휘로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표 1은 이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기본어휘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1. 기본어휘들의 사용빈도⁷⁾와 선정 등급의 수

사용빈도 선정등급	~1,000등	~2,000등	~3,000등	~4,000등	~5,000등	5,000등~	합계
3개	272	135	75	47	39	68	636 (568)
2개	83	50	29	24	18	48	252 (186)
1개	167	105	94	62	32	189	649 (167)
합계	522	290 (185)	198 (104)	133 (71)	89 (39)	305	1,537 (921)

표 1을 토대로 우리는 음영 처리된 부분에 속하는 어휘들을 기본어휘로 선정하였다. 그 합계는 921개로 초급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기에는 다소 적어 보인다⁸⁾. 이에 일차 선정에서 탈락한 610여 개 어휘 중 180개와 고빈도 어휘 중 기본어휘에서 누락된 어휘 중 200개를 추가로 선정하여 1,300여 개의 기본어휘 목록을 확정하였다. 이 과정에는 다음 세 기준이 사용되었다. (1) 초급 수준의 한국인 학습자가 알아야 하는가? (2) 초급 교재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 및 주제와 관련하여 즉각 떠오르는 가용어휘인가? (3) 기본어휘로 이미 선정된 어휘 또는 영어에서 배운 단어와 유사하여 쉽게 배울 수 있는

- 6) 사실, 사용빈도를 기준으로 기본어휘를 선정하는 방식이 타당성을 완전히 입증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용빈도와 학습의 필요성이 서로 비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용빈도가 높다는 것이 반드시 해당 어휘를 다른 어휘들보다 먼저 그리고 우선적으로 학습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사용빈도와 적절한 학습 단계에 관해서는 보다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는 1차 검증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2차 검증을 수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빈도가 대규모 어휘 목록을 대상으로 그 적정성을 검증하는 아주 효율적이고도 객관적인 기준임은 명백하다.
- 7) 사용빈도는 Lonsdale & Le Bras (2009)을 기준으로 하였다.
- 8)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교육부는 일반 고등학교에서의 제 2 외국어 교육을 위해 약 900개의 단어를 제안한다. 한편 Milton & Alexiou (2009)에 따르면, 영국과 스페인, 그리스의 프랑스어 학습자 중 A1 등급은 평균 900~1,100개의 어휘를, A2 등급은 평균 900~1,700개의 어휘를 알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900여 개는 A1 수준의 능력을 갖추는 데는 적절한 어휘 수라 할 수 있지만 A2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기에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가?)

두 번째 검증은 기본어휘의 실용도와 교재 점유율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Ko & Lee, 2019). 실용도란 전체 기본어휘 중에서 초급용 교재와 자료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의 비율이고, 교재 점유율은 초급용 교재와 자료의 총 출현수(tokens) 대비 기본어휘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즉, 기본어휘가 실제로 교재와 자료에서 쓰이는지, 그리고 교재와 자료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이는 귀납적으로 기본어휘의 적정성을 검증한 것으로, 어떤 어휘가 기본어휘라면 초급용 교재와 자료에서 빈번히 사용될 것이고, 또한 초급용 교재와 자료는 기본어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이러한 가정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확정한 기본어휘의 실용도와 교재 점유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표 3에서 보듯이, 우리의 기본어휘는 94.7%의 실용도와 76.1%의 교재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표 2. 기본어휘의 실용도

	실용어휘 ¹¹⁾	비실용어휘	합계
어휘수	1,227	68	1,295
비율	94.7%	5.3%	100.0%

표 3. 기본어휘의 교재 점유율

	기본어휘의 출현수	기타 어휘의 출현수	전체 출현수
어휘수	66,168	20,814	86,982
비율	76.1%	23.9%	100.0%

실용도 측면에서 우리의 기본어휘 목록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즉 대부분의 어휘가 초급용 교재에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반면 교재 점유율은 76.1%로 다소 낮아 보인다. 이는 평균 4개의 단어 중 1개꼴로 모르는 단어를 만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의 기본어휘를 모두 알고 있더라도 우리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교재가 다소 어렵다고 느낄 만한 수치이다. 또한 Liu & Nation (1985)과 Laufer (1989) 등 교재 점유율이 95%에 이르러야 사전 등 보조자료의 도움 없이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다는 이전 연구들을 따르면 76.1%는 한참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재 점유율을 높이고 실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추가 선정 기준

9) 이들은 사용빈도와 함께 기본어휘 선정 시 가장 많이 고려되는 기준이다. Kim (2006, pp. 9-10) 참조.
 10) 이 결과는 A등급의 DELF 교재 2종, 서울대학교 초급프랑스어, 이 글의 3장에서 소개할 기본어휘의 사용상황별 대화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자세한 것은 Ko & Lee (2019) 참조.
 11) 기본어휘 중 실제 교재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실용어휘로, 그렇지 않은 것을 비실용어휘로 부르기로 한다.

을 적용하여 비실용어휘 68개 중 20여 개를 제외시키고 대신 교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어휘 중에서 150여개를 추가로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1,430여개의 기본어휘 목록을 확정하였다.

2.2. 기본어휘의 문법정보 DB 구축

기본어휘가 확정되고 난 후, 이들 기본어휘를 대상으로 각각의 문법정보를 상세히 담은 DB가 구축되었다. DB의 미시구조 설계와 어휘의 다의분할 및 문법정보 기술을 포괄하는 DB 구축 작업에는 어휘·문법(*lexique-grammaire*) 이론과 대상부류(*classes d'objets*) 이론이 방법론으로 채택되었다.

어휘·문법 이론은 최소 의미 단위인 고립된 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단문¹²⁾이라는 입장에서 술어가 갖는 통사속성, 즉 분포속성과 변형속성을 단문층위에서 기술하고 이를 통해서 한 언어의 어휘(부)를 구축하고자 한다(Gross, 1975, 1981; Lee, 2017). 한편, 대상부류 이론은 어휘문법 이론의 기본 틀을 받아들이면서도 이 이론이 어휘기술에서 미흡하게 다루었던 의미 측면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보다 완결된 형태의 어휘부를 구축하고자 한다. 즉, 통사정보 못지않게 체계적이고 형식적인 의미정보를 어휘기술에 제공함으로써 통사정보와 의미정보를 보다 균형적으로 갖춘 어휘 기술을 추구하는 것이다(Lc Pesant & Mathieu-Colas, 1998; Gross, 1994, 2012; Lee, 2017).

이 두 언어 기술 이론을 토대로 구축된¹³⁾ 우리의 프랑스어 기본어휘 DB에는 어휘의 올바른 사용에 필요한 다양한 문법정보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즉 해당 어휘의 용법과 의미부류, 논항구조, 논항의 형태 및 의미속성, 결합속성 등 다양한 분포속성과 변형속성이 정교하고 세밀하게 기술되었다.

aller	술어대상부류	의미	논항구조	주어			목적보어1				기타요소		
				N0=대상부류	N0=Inf	N0=queP	Prep	대상부류	Inf	queP		siP	ADV
자동사	이동행위	가다	N0 V Prep N1	N0=인간, 동물, 교통기관, 길	-	-	-	-	-	-	-	-	-
	목적이동행위	가다	N0 V inf.	N0=인간, 동물	-	-	-	-	-	-	-	-	-
	상태	지낸다	N0 V ADV	N0=인간	-	-	-	-	-	-	-	-	bien, mal
간접타동사	상태	되어가다, 진행되다	N0 V ADV	N0=시간, 행위	-	-	-	-	-	-	-	-	bien, mal
	상태	어울리다, 맞다	N0 V Prep N1	N0=의복, 속성	-	-	-	avec	N1=의복, 속성	-	-	-	bien, mal
조동사			N0 V inf.	N0=의복, 속성	-	-	-	à	N1=인간	-	-	-	bien, mal

그림 1. 기본어휘 DB의 구성과 어휘 기술의 예 : 동사 aller

12) 단문은 이때 하나의 술어와 그것의 고유논항들로 구성된다. Gross (1981)을 참조.
 13) 여기서는 이 두 언어이론이 어떤 방식으로 프랑스어 기본어휘 DB구축에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Ko & Lee (2018)을 참조하라. 이는 사용상황 체계 수립과 대화세트 제작 등 기본어휘의 사용상황 온톨로지 구축과 그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3. 사용상황 체계 수립

기본어휘의 확정과 그 DB 구축 작업과 병행하여 기본어휘의 사용상황 체계를 수립하는 작업이 수행되었다. 그 작업의 주된 내용은 기본어휘의 사용상황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서 사용되는 특징적이고 전형적인 언어 사용 사례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본어휘의 사용상황 유형화는 bottom-up 방식과 top-down 방식으로 병행 수행되었다. 전자는 프랑스어 교재 5종에 나타나는 어휘의 사용상황들을 분석하여 유형화하는 경험적·실증적인 방식이고, 후자는 『참조기준』과 『지침』에서 추출한 지표와 기준을 활용하여 사용상황을 유형화하는 연역적·이론적 방식이다. 또한 이 두 방식은 모두 대상부류 이론에 준거하여 채택, 적용되었다.

3.1. 사용상황 체계 수립을 위한 이론적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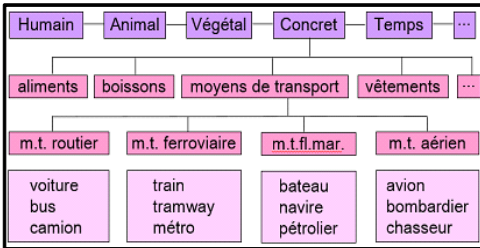
3.1.1. 대상부류 이론

대상부류 이론은 통사정보와 의미정보를 보다 균형적으로 갖춘 어휘 기술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이다. 그런 이유로, §.2.2.에서 보았듯이, 어휘문법 이론과 함께 우리의 기본어휘 DB 구축에서 주된 방법론으로 채택되었다. 그런데, 대상부류 이론은 특정 의미를 공유하는 어휘들이 보이는 공통적 통사행태를 근거로 하여 어휘들의 위계적 집합(대상부류)을 만드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Le Pesant & Mathieu-Colas, 1998; Gross, 1994, 2012; Lee, 2017). 즉, 대상부류 이론에서 특정 언어의 어휘부를 기술하는 것은 어휘들이 보이는 통사속성에 근거한 의미부류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축된 의미부류를 대상부류라고 한다. 그런 만큼, 대상부류는 어휘의 통사·의미 속성에 따라 구축된 어휘 의미부류 체계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어휘 기술 방법론을 함께 지칭한다.

이러한 이론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대상부류 이론은 우리가 사용상황 체계를 수립하는 데도 이론적 틀을 제시해준다. 특히, 대상부류 체계를 구성하는 개별 부류의 설정 방법은 기본어휘의 사용상황 체계를 구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사실, 대상부류 이론에서는 특정 대상부류를 설정하고자 할 때 다음 과정을 거친다.

- ① 구축해야 할 의미부류 설정
- ② 설정 대상 부류의 의미영역을 특징짓는 의미요소들을 추출
- ③ 이 요소들이 실현되어 있는 어휘들로 적정술어 구성
- ④ 적정술어와의 결합 가능성에 따라 해당명사 판별, 분류

예를 들어, <교통수단>¹⁴⁾부류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이 부류의 의미영역을 특징짓는 의미요소들을 추출한다. 즉, <m.t.>가 「사람들이 이동의 수단으로 타고 다니는 것」이라는 속성으로부터 「이동의 수단」, 「탈것」, 「속도」 등의 의미요소들을 추출한다. 그런 다음, 이들 의미요소가 언어상에 투영된 형태, 즉 이 요소들이 실현되어 있는 어휘들로 적정술어를 구성한다. 예컨대, 「이동의 수단」이라는 의미요소가 실현된 어휘들인 'se déplacer en ~', 'voyager en ~' 등과 「탈것」이라는 의미요소를 반영하는 어휘들인 'monter dans ~', 'descendre de ~', 'changer de ~' 등으로 <m.t.>의 적정술어가 구성된다. 이런 방식으로 설정된 대상부류가 기술되고 구성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Moyens de transport aérien>

- Noms : avion, chasseur, bombardier, etc.
- Opérateurs appropriés :
 - <m.t.a.> atterrir/décoller/s'envoler
 - crash de <m.t.a.>

그림 2. 대상부류 체계

그림 3. <항공교통수단> 기술의 예

3.1.2. 대상부류 이론과 전문영역 분류 체계

이러한 방법론상의 특성으로 인해, 대상부류 이론은 일반어 어휘의 기술은 물론이고 전문어 어휘의 기술에서도 그 효용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전문어 어휘의 기술을 위한 어휘의 사용상황 유형화와 어휘의 의미영역 분류를 통합한 어휘 기술 방식은 그 성과를 인정받아 다양한 전문영역의 어휘 기술에 적용되고 있다.¹⁵⁾

여러 성과들 중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전문어 어휘의 기술을 위해 수립한 전문영역 분류 체계¹⁶⁾이다. 이 체계는 범영역, 전문영역, 하위영역 등 3층위로 구성된 중층적 영역분류 체계로서, 각각 21개, 94개, 741개 등 856개의 전문영역을 담고 있다. 특히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특화자¹⁷⁾ 표지를 두어 영역표기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자 장점이다. 이러한 전문영역 체계는 어휘 기술 시에 어떤 어휘의 특정 의미가 빈번하면서도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영역을 명기하는 데에 사용된다.¹⁸⁾ 다음 예

14) <moyen de transport>, 이하 <m.t.>로 표기.

15) 그러한 연구로는 Gross (2001), Gross & Guentner (2002), Lee (2012) 등이 있고, 각각 의료, 축구, 육군 영역을 다루고 있다.

16) 이는 개념 분류 방식을 통해서 수립된 것으로 어휘의 의미 분류 체계와는 구별된다. 자세한 사항은 Mathieu-Colas et al. (1998)를 참조할 것.

17) 예컨대 역사는 정치, 경제, 미술, 건축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분류 기준인 만큼 정치사, 경제사, 미술사, 건축사 등의 영역 분류를 하지 않고 기존 영역 분류 체계와 특화자 '역사'의 조합으로 세분된 영역을 명기한다.

의 D 항목이 그것이다.¹⁹⁾

abattre/N0:hum/N1:vég<arbre>/N2:/Sy:renverser/D:
abattre/N0:hum/N1:inc<avion>/N2:/Sy:descendre/D:mil.
abattre/N0:hum/N1:ani/N2:/Sy:tuer/D:cuis.
abattre/N0:hum/N1:hum/N2:avec inc<arme>/Sy:tuer,descendre/D:
abattre/N0:hum,évé/N1:hum/N2:avec évé/Sy:déprimer/D:psych
abattre/N0:hum/N1:hum<collectif politique>/N2:/Sy:renverser/D:pol.
etc.

그림 4. 어휘기술 시 전문영역 표상의 예

3.2. 사용상황 체계 수립

3.2.1. 사용상황 체계 수립을 위한 지표 설정

기본어휘의 사용상황 설정과 구성은, 앞에서 말했듯이, bottom-up 방식과 top-down 방식을 병행하여 수행되었다. 의미 혹은 개념 분류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드러났듯이, 이런 종류의 작업은 한 가지 방식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고, 위의 두 방식을 보완적으로 사용해야 하기에 그렇다.

3.2.1.1. 프랑스어 교재를 통한 지표 설정

먼저 프랑스어 교재의 검토·분석을 통한 사용상황의 유형화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행된다.

- ① 기본어휘들이 출현하는 사용상황의 목록 작성
- ② 사용상황들의 비교·검토와 유형 분류
- ③ 사용상황 유형(부류)들 간의 위계 설정

이 작업을 위한 검토·분석의 대상으로 우리는 A등급 FLE 교재 5종²⁰⁾을 선택하였다. 이들 교재를 대상으로 수록된 각종 대화와 담화 텍스트들을 수집, 검토하여 그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7가지의 대화 유형을 정립하였다. <반응하기>, <기술하기>, <소개하기>, <안대하기>, <요구하기>, <대답하기>, <제안하기>, 그리고 <질문하기>가

18) 즉, 전문영역 정보는 특정 어휘의 특정 용법이 전문어로 사용될 때 이를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그래서, 일반 용법에는 전문영역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다. 예컨대, 한국어 명사 ‘집’이 일상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전문영역 정보가 비어있고, 바둑 분야에서의 ‘집’을 말하는 용법으로 쓰일 때만 전문영역 정보가 명기된다.

19) N0, N1, N2는 논항을, Sy는 동의어를, D는 전문영역을 지칭한다. Mathieu-Colas (2006) 참조.

20) abc DELF A1, A2; Le DELF 100% réussite A1, A2; Réussir le DELF A1, A2; Les clés du nouveau DELF A1, A2; Préparation à l'examen du DELF A1, A2. 자세한 서지는 <References>를 참조.

그것이다.

그런 다음, 이 대화 유형 각각에 대하여 두 번에 걸쳐, 즉 2층위에 걸쳐 하위분류를 하였다. 예컨대, <안내하기>는 <장소 안내하기>와 <시간 안내하기>, <행사 안내하기> 등으로 나뉘고, 그 중 <행사 안내하기>는 다시 <회의 안내하기>, <음악회 안내하기>, <전시회 안내하기>, <축제 안내하기>, <식 안내하기> 등으로 하위분류를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총 314개의 대화 유형을 정립하였다²¹⁾. 이 대화 유형들이 우리가 사용상황 체계를 수립하는데 지표로 사용되었다.

3.2.1.2. 『참조기준』과 『지침』을 통한 지표 설정

한편, 『참조기준』과 『지침』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한 사용상황의 유형화는 다음의 과정을 포함한다.

- ① 『참조기준』과 『지침』의 검토·분석을 통한 유효 지표 목록 작성²²⁾
- ② 전문영역 분류 체계 검토를 통한 유형 지표 목록 작성²³⁾
- ③ 두 결과의 통합으로 사용상황의 유형체계의 모델 설정

먼저, 『참조기준』과 『지침』의 검토·분석을 통한 유효 지표 추출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참조기준』의 §.4.2.와 §.4.3.에서는 각각 의사소통의 주제(thèmes de communication)와 의사소통 과업과 목적(tâches communicatives et finalités)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들로부터 우리의 사용상황 체계 설정에 필요한 유효한 지표들을 추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참조기준』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활용 가능하게끔 정리한 『지침』으로부터도 같은 작업을 수행하였다.

『지침』에서는 『참조기준』에서 설명된 상기 내용, 즉 의사소통의 주제나 의사소통 과업 및 목적과 관련한 내용들이 일반개념과 특수개념, 그리고 기능이라는 세 개념들과 함께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 제시되고 있다²⁴⁾.

일반개념은 존재, 공간, 시간, 양 등과 같은 의미 범주(catégories sémantique)들을 일컫는다(『지침 A1』, p. 77). 언어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인 만큼 기초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아주 유용하다고 한다²⁵⁾.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²⁶⁾.

21) 최상위 대화유형 7개와 1 수준 하위 유형 100개, 그리고 2 수준 하위 유형 207개.

22) 『참조기준』의 §.4.2.와 §.4.3., 『지침』의 §.3., §.4.와 §.6. 참조.

23) §.3.1.2. 참조.

24) 일반개념과 특수개념, 그리고 기능은 각각 『지침』의 §.4.와 §.6., 그리고 §.3.에서 설명된다.

25) 『지침 A1』, p. 77, "... particulièrement utiles pour organiser des programmes à l'intention d'apprenants élémentaires, puisque ces catégories sont largement indépendantes des langues."

26) 다음 목록의 번호는 『지침 A1』에서 제시되는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이 번호들이 이들 개념의 인식번호처럼 사용되기 때문이다.

표 4. 일반개념

4.1. Existence	4.4. Temps
4.2. Quantité	4.5. Qualité des êtres et des choses
4.3. Espace	4.6. Relation logique

이들 일반개념들은 각각이 다시 두 번에 걸쳐 하위부류로 세분된다. 예컨대 일반개념 ‘양(quantité)’는 다음과 같은 하위부류들을 갖는다.

표 5. ‘Quantité’의 하위개념

4.2. Quantité	
4.2.1. Nombre	
4.2.2. Quantité relative	
4.2.3. Mesures	
	4.2.3.1. Mesures générales
	4.2.3.2. Taille
	4.2.3.3. Dimension
	4.2.3.4. Distance

한편, 특수개념은 그것들을 중심으로 담화가 구성되는 의사소통의 주제들을 나타낸다(『참조기준』, p. 45). 이들 개념들 또한 위계적으로 분류된 개념 및 하위개념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개념들 내에는 관련 어휘들이 제시되어 있다(『지침 A1』, p. 100). 다음은 ‘직업과 일(profession et métier)’ 주제와 관련된 특수개념의 예이다.

표 6. 특수개념

6.5. Profession et métier	
	6.5.1. Activité professionnelle
	6.5.2. Lieu de travail
	6.5.3. Conditions de travail
	6.5.4. Recherche d'emploi, chômage
	6.5.5. Rémunération, salaire

그런가 하면, 기능은 의사소통의 의도를 나타낸다(『지침 A1』, pp. 49-77). 이것 역시 일반층위와 특수층위, 두 층위에 걸쳐 분류된다. 일반층위에서는 기능이 7개의 <하위항목(sous-chapitres)>으로 나뉘고, 특수층위에서는 이들 하위항목이 보다 세밀한 기능 관련 하위부류들로 세분된다.

표 7. 일반수준의 기능

3.1. Interagir à propos d'information
3.2. Interagir à propos d'opinions ou de positions
3.3. Interagir à propos d'émotions ou de sentiments
3.4. Interagir à propos d'activités ou d'actions
3.5. Interagir dans les rituels sociaux
3.6. Structurer son propos
3.7. Structurer l'interaction verbale

표 8. 특수층위의 기능 예

3.1. Interagir à propos d'information	
3.1.1. Identifier	3.1.5. S'informer
3.1.2. Affirmer	3.1.6. Confirmer, démentir
3.1.3. Décrire	3.1.7. Rectifier
3.1.4. Raconter	3.1.8. Répondre à une demande d'information

이렇게 『참조기준』과 『지침』들에서 제안된 이들 개념들로부터 우리는 사용상황 체계를 설정하기 위한 지표들을 추출하였다.

3.2.2. 사용상황 체계의 구성

사용상황 체계는 상기한 방법으로 추출된 지표들로부터 수립되었다. 즉, 이들 지표들의 조합을 통해 사용상황 부류들을 설정하고 이들을 유형화하고 위계화하는 방식으로 사용상황 (부류)체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장한 사용상황 체계는 최상위 노드를 포함하여 총 5개 층위의 201개 노드로 구성된 위계적인 트리구조이다.²⁷⁾

27) 총 201개의 노드 중 실제 기본어휘들의 사용 예인 대화세트가 기술되어 있는 사용상황은 총 164개이다. 나머지는 37개는 분할을 매개하는 노드, 즉 비종단 노드이다. §.3.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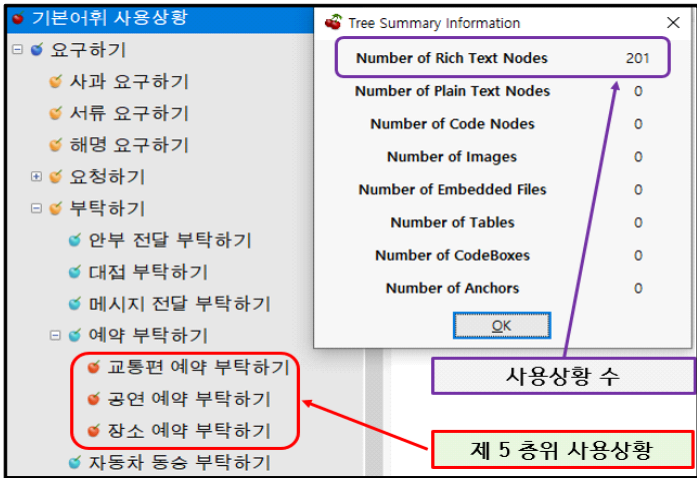


그림 5. 사용상황 체계

사용상황 체계가 수립된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상위 노드로부터 최초 분할된 제 1층위에 9개의 사용상황이 설정되었다. <요구하기>, <예약하기>, <구매하기>, <제안하기>, <설명하기>, <안내하기>, <표현하기>, <응대하기>, <문고-답하기>가 그것이다. 그런 다음 이들 9개의 사용상황 각각을 하위분류하여 54개의 제 2층위 사용상황을 설정하였다. 예컨대 사용상황 <표현하기>는 <감정 표현하기>와 <신체상태 표현하기>, <인사하기>, <기원하기> 등 4개의 하위부류로 분할되었다.

이러한 방법을 계속하여 제 3층위와 제 4층위, 제 5층위까지의 하위 사용상황들이 설정되었다. <표현하기>의 경우를 계속 예로 들자면 제 2층위 <감정 표현하기>는 하위 분할을 통하여 <기쁨 표현하기>, <슬픔 표현하기>, <분노 표현하기>, <실망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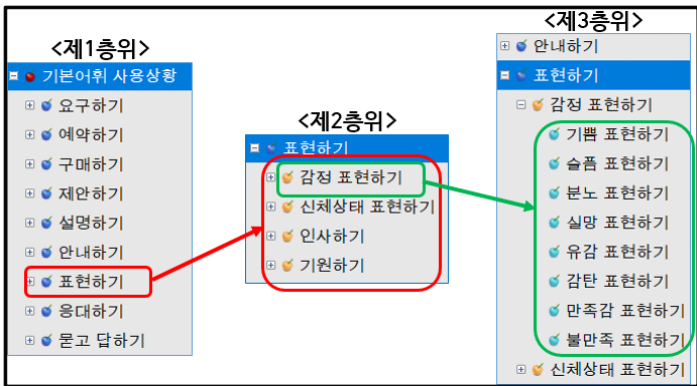


그림 6. 여러 층위의 사용상황

하기>, <유감 표현하기>, <감탄 표현하기>, <만족감 표현하기>, <불만족 표현하기> 등 8개의 제 3층위 사용상황들이 설정되었다.

3.2.3. 사용상황별 대화세트 제작

사용상황 체계를 수립한 후, 우리는 사용상황별로 대화세트를 구성, 기술하였다. 즉, 사용상황별로 그 상황에서 가장 흔히, 그리고 가장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들로 대화세트를 구성하였다. 이때, 다음 두 가지 원칙에 특히 유의하였다. 최대한 우리가 획정한 기본어휘들을 사용한다는 것과 사용상황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대화들을 구성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기본어휘 획정과 사용상황 체계 수립 시에 사용했던 5종의 FLE 교재를 사용하였다. 우선 이들 교재의 대화들을 수집하고, 이들 대화에 쓰인 프랑스어 어휘와 표현들을 검토하여 기본어휘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우리가 수립한 사용상황들에 맞는 새로운 대화세트들을 구성하였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사용상황 : <감사하기>
A: Merci de m'avoir aidé.
B: De rien. C'est normal.

- 사용상황 : <찬성하기>
A: Que pensez-vous de mon projet ?
B: Je suis d'accord avec vous !

- 사용상황 : <슬픔 표현하기>
A: Je rentre dans mon pays.
B: Je suis triste.

- 사용상황 : <도착시간 안내하기>
A: L'avion arrivera à 17 heures 30.
B: Bien. Moi, j'arriverai à l'aéroport vers 18 heures.

그림 7. 사용상황에 따른 대화

이들 대화세트는 또한 어떤 사용상황이든, 그림 8이 잘 보여주듯이, 그 자체가 다양한 의사소통 맥락을 가진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도록 구성되었다.

대화세트는 위계별로 말단 사용상황에 3개씩이 부가된다. 즉 최상위 노드를 포함하여 중간 층위의 사용상황에는 전형적 사용사례를 보여주는 대화세트가 부가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164개 사용상황에 대해 3개씩, 즉 총 492개의 사용사례 대화세트가 기술되었다.

- Usage 1

A: Allô, bonjour ! Vous auriez une chambre pour trois personnes ?
 B: Pour quand, monsieur ?

- Usage 2

A: Bonjour ? Je voudrais réserver une table pour six personnes, s'il vous plaît !
 B: C'est pour quelle date, madame ?

- Usage 3

A: Madame, bonjour ? Y aurait-il encore deux places pour la séance de 14 heures 30 ?
 B: C'est pour aujourd'hui ou pour demain ?

그림 8. 특정 사용상황의 대화 예 : <장소 예약하기>

3.2.4. 사용상황과 대화세트의 매핑 : 사용상황 체계 수립

이 작업은 상기 두 작업, 즉 사용상황 체계 수립과 대화세트 구성의 결과를 종합하여 사용상황 체계의 각각에 대해 전형적이고 특징적인 언어사용의 사례(대화세트)들을 기술하는 것이다. 예컨대, 다음 그림 9는 <음료 주문하기>의 사용상황과 그 상황에 해당 되는 대화세트의 매핑 결과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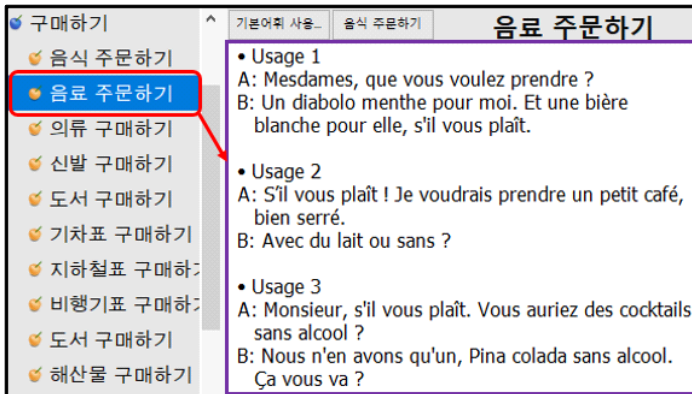


그림 9. 사용상황과 대화세트의 매핑 예

위의 그림 9에서 'Usage'는 이전 단계의 작업들에서 작성·선정된 기본어휘들이 빈번하고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사례들이다. 즉 <음료 주문하기> 상황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질문과 응답으로 구성된 대화세트들로서, 음료를 주문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보여준다. 즉 카페에서 점원의 물음에 답하는 방식으로 음료를 주문하는 상황(Usage 1),

손님이 점원을 불러 음료를 주문하는 상황(Usage 2), 그리고 원하는 음료의 유무를 묻는 상황(Usage 3) 등의 상황이 제시된다.

이렇게 사용상황과 그 대표적 대화세트들이 연동되어 사용상황 온톨로지가 구축이 되고, 이것이 다시 기본어휘 DB와 연동됨으로써 교육 및 평가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게 된다.

4. 사용상황 온톨로지의 완성과 활용

기본어휘 DB(문법정보)와 사용상황 온톨로지의 연동

4.1. 사용상황 온톨로지의 완성 : 사용상황 체계와 기본어휘 DB와의 연동

상기한 방식에 의해 구축된 사용상황 체계는 이와 병행하여 구축된 기본어휘 DB와 다각적인 참조가 가능하도록 연동됨으로써 기본어휘의 사용상황 온톨로지가 완성된다.

이 두 결과물의 연동 체제는 무엇보다도 기본어휘에 속하는 한 어휘에 대하여 그 문법정보를 얻고자 기본어휘 DB를 참조하거나 또는 그 어휘의 실제 사용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사용상황 체계를 참조하거나 할 수 있는 양방향 참조를 가능하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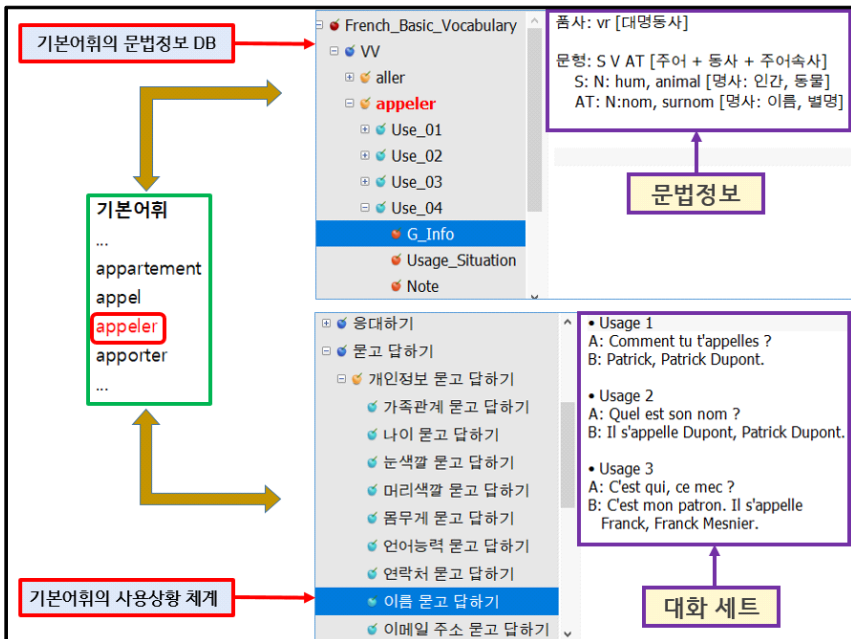


그림 10. 기본어휘목록을 통한 양방향 참조의 예

뿐만 아니라, 기본어휘목록을 거치지 않고서도 직접 상대 DB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호 간 참조도 가능하게 해준다. 즉 기본어휘 DB에서 어휘의 문법정보를 검색하다가 해당 어휘의 사용상황 정보를 얻고자 사용상황 체계로 접근할 수 있고, 반대로 사용상황 체계에서 정보를 검색하다가 특정 어휘의 문법정보를 얻고자 하면 기본어휘 DB에 접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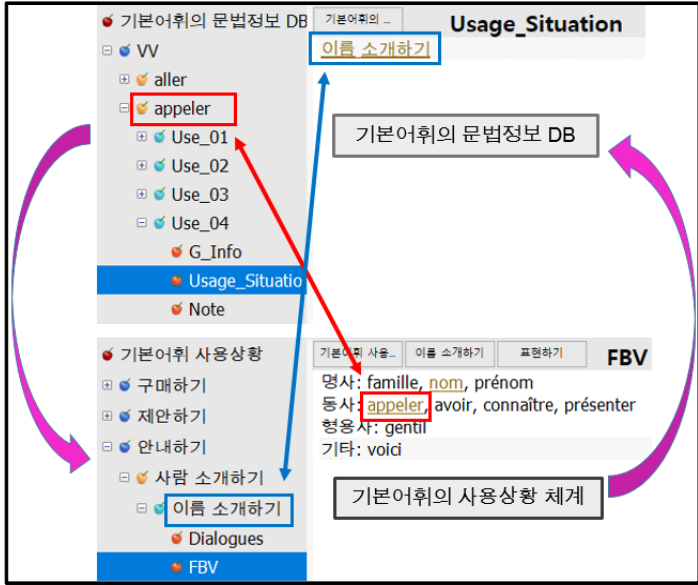


그림 11. 기본어휘 DB와 사용상황 온톨로지의 상호간 (직접) 참조의 예

4.2. 사용상황 온톨로지의 활용

4.2.1. 기본어휘에 대한 통합적 정보 검색

기본어휘의 사용상황 온톨로지는 이렇게 기본어휘의 문법정보 DB와 사용상황 체계의 연동 체제인 만큼, 기본어휘에 대한 통합적 정보 검색에 활용될 수 있다. 즉 (기본어휘의) 사용상황 온톨로지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어떤 기본어휘에 대해서 그것의 문형이나 논항의 수와 성격 등 문법정보는 물론이고 그 어휘의 실제 쓰임에 관한 상황정보까지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컨대, 어휘 *se promener*에 대해 알고 싶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본어휘의 사용상황 온톨로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우선 기본어휘목록에서 (*se promener*)를 검색하고, 그 결과로부터 문법정보 DB와 사용상황 체계를 참조한다. 문법정보 DB로부터 이 어휘가 문형 및 논항의 수와 성격 등 정보를 얻고, 다른 한편으로

사용상황 체계에서는 이 어휘가 <외출 제안하기> 상황에서 사용되고 이 어휘가 포함된 대화 사례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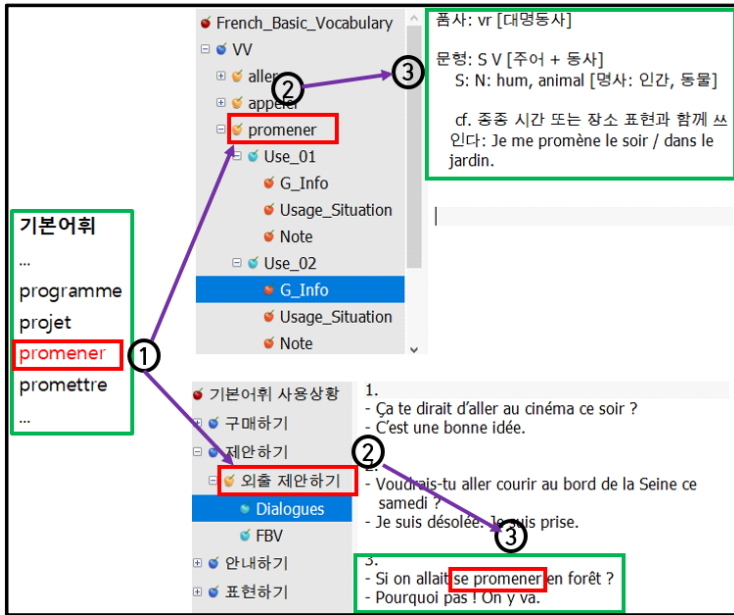


그림 12. 기본어휘에 대한 통합적 정보검색의 예: se promener

4.2.2. 사용상황에 대한 통합적 정보 검색

또한 기본어휘 사용상황 온톨로지는 사용상황 체계로부터 출발해서 특정 상황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표현과 이에 사용되는 기본어휘에 관한 정보를 함께 얻을 수 있는 복합적 정보 검색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를 사용하여 서로 이름을 묻고 답하는 상황에 대해 알고 싶다면, 사용상황 체계에서 ‘이름’으로 검색을 해서 <이름 소개하기> 사용상황을 찾을 수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그 결과는 곧바로 해당 사용상황의 전형적인 대화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대화에 사용되는 기본어휘의 문법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다.

4.2.3. 기본어휘의 교육 및 평가에의 활용

기본어휘의 사용상황 온톨로지는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기본어휘 DB와 사용상황 체계의 연동 체재를 갖추므로 해서 기본어휘에 대한 언어정보와 사용상황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그런 까닭에 기본어휘의 교육 및 평가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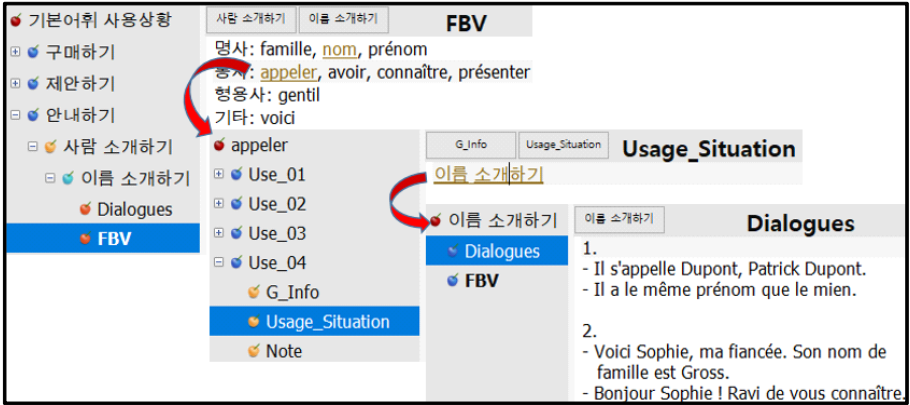


그림 13. 두 DB의 상호작용

교육과 관련해서는 바로 앞 §.4.2.에서 기본어휘의 사용상황 온톨로지가 문법정보와 사용상황 정보의 통합적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준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림 12~13을 통해 보인 것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어떤 기본어휘의 교육을 위해서, 기본어휘의 DB를 활용하여 그 어휘의 문법정보를 자세하고도 체계적으로 보여 줄 수 있고, 또 사용상황 온톨로지를 활용해서 그 어휘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다.

평가에의 활용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예컨대 현재 사용상황 체계에 수록된 대화 사례를 활용하되 일부를 빈칸으로 대체함으로써 이에 사용될 적절한 어휘와 표현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기본어휘의 문법정보 DB를 활용하면 특정 어휘의 중요한 문법정보를 알고 있는지 묻고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교육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뿐만 활용된다. 평가는, 주지하다시피, 그 속성 상 교육된 모든 내용에 대해 일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해와 숙지 상태뿐만 아니라 활용 및 응용 능력 등 나름의 논리와 체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기본어휘의 사용상황 온톨로지가, 교육 분야와는 달리, 평가분야 전부를 커버할 수 있는 핵심자료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평가할 내용의 획정에는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용상황의 대화세트를 충분히 늘리고, 사용 예를 대화 외에도 담화 등 다양한 기제로 다각화할 경우 더욱 그럴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프랑스어 기본어휘의 사용상황 온톨로지의 구축 과정과 활용 방안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프랑스어 기본어휘의 문법정보를 담은 DB와 그 어휘들이 실제로 사용되는 전형적인 용례와 그 상황을 통합한 사용상황 체계를 매핑하는 과정이었다. 이를 위해 프랑스어 기본어휘 확정과 관련한 선행연구도 개관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구축한 기본어휘 사용상황 온톨로지는 기본어휘의 실제 사용에 필요한 핵심적인 문법정보와 사용상황 정보를 연동함으로써 프랑스어 기본어휘에 대한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교육과 학습을 가능하게 해줌을 보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본어휘 사용상황 온톨로지는 프랑스어 평가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아울러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과 평가 분야에서 보다 다양한 활용을 전망하게 한다. 우리가 제공하는 기본어휘의 문법 및 사용상황 온톨로지로부터 초급 프랑스어 교육에 사용할 교육 자료를 개발할 수도 있고, 어휘의 구체적인 쓰임과 관련된 문법정보를 담은 기본어휘 사전의 개발이나 여기서 제시되는 사용 예들을 적극 활용하는 교재 개발도 기대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프랑스어 평가의 효율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어휘와 문법이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사례들을 활용하여 초급 수준의 프랑스어 학습자가 알고 있어야 할 언어지식을 묻는 각종 평가시험의 문항 개발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같은 원리로 출제된 평가 문항의 난이도 등 적정성을 평가하거나 또는 이를 위한 도구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법론은 다른 수준의 어휘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상황 온톨로지 구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B1, B2, C1, C2 등 중, 고급 프랑스어 어휘들의 온톨로지 구축에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

한편 기본어휘의 사용상황 온톨로지 구축에 활용된 방법론은 의미부류, 시소러스, 온톨로지 등의 연구에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 연구 관련 분야의 최대 쟁점 또는 난관은 언어 내적 요소인 어휘의 ‘의미’와 언어 외적 현실의 ‘개념’을 구별하는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이 두 요소를 통합한 분류체계 구성 시 적용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까다로운 문제이다. 우리 연구가 언어 내적 속성이라고 하는 기본어휘들의 통사·의미 등 문법속성과 언어 외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언어의 사용상황 유형을 통합하는 온톨로지를 구축한 것인 만큼, 그 과정과 결과는 상기한 분야의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는 기본어휘의 문법정보와 전형적이고 특징적인 실제 사용상황 정보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어휘부 기술에서는 간과되었던 화용정보를 어휘부 내에 통합하는 한 방안을 제시한다. 그런 만큼 어휘의 화용정보 기술을 위한 후속 연구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Beacco, J.-C., & Porquier, R. (2008). *Niveau A2 pour le français. Un référentiel*, Didier.
- Beacco, J.-C., De Ferrari, M., Lhote, G., & Tagliante, C. (2006). *Niveau A1.1 pour le français. Un référentiel*, Didier.
- Beacco, J.-C., Porquier, R., & Bouquet, S. (2007). *Niveau A1 pour le français. Un référentiel*, Didier.
- Boyer-Dalat, M., Chrétien, R., & Frappe, N. (2016). *Le DELF 100% réussite A1*. Les Editions Didier.
- Clément-Rodriguez, D. (2013). *abc DELF A2*. Cle International.
- Clément-Rodriguez, D. (2014). *abc DELF A1*. Cle International.
- Conseil de l'Europe. (2000). *Cadre européen commun de référence pour les langues : apprendre, enseigner, évaluer*. Strasbourg, Didier.
- Dupleix, D., & Houssa, C. (2016). *Le DELF 100% réussite A2*. Les Editions Didier.
- Dupuy, M., & Launay, M. (2010). *Réussir le DELF A2*. Les Editions Didier.
- Godard, E., Liria, P., Sige, J. (2006). *Les clés du nouveau DELF A2*. Editions Maison des Langues.
- Gougenheim, G., Michéa, R., Rivenc, P., & Sauvageot, A. (1967). *L'élaboration du français fondamental, 1^{er} degré : étude sur l'établissement d'un vocabulaire et d'une grammaire de base*. Didier, Paris.
- Gross, G. & Guenther, F. (2002). Comment décrire une langue de spécialité ?. *Cahiers de Lexicologie*, 80, 179-200.
- Gross, G. (1994). Classes d'objets et description des verbes. *Langages*, 115, 15-31.
- Gross, G. (2001). Description de la langue de la médecine. *Meta*, 46(1), 68-81.
- Gross, G. (2012). *Manuel D'Analyse Linguistique. Approche Sémantico-syntaxique du Lexique*. Villeneuve d'Ascq: Presses universitaires du Septentrion.
- Gross, M. (1975). *Méthodes en syntaxe*. Hermann.
- Gross, M. (1981). Les bases empiriques de la notion de prédicat sémantique. *Langages*, 63, 7-52.
- Hirschsprung, N., & Holle, A. (2007). *Préparation à l'examen du DELF A2*. Hachette.
- Kim, E.-J. (2006). A propos de la sélection de vocabulaires élémentaires dans l'enseignement secondaire du français. *Enseignement de Langue et Littérature Françaises*, 23, 7-26.
- Ko, K., & Lee, S. H. (2018). French basic vocabulary database, Its microstructure and information description. *Language Research*, 54(3), 469-490.
- Ko, K., & Lee, S. H. (2019). How to evaluate the adequacy of the French basic vocabulary – A preliminary study for the construction of a French basic vocabulary DB in perspective of French language education and assessment. *Eoneohag: Journal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85, 29-56.
- Kusseling, Fr. S. (2012). *A corpus-based evaluation of the common European framework vocabulary*

- for French teaching and learning (PhD disserta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 Kusseling, Fr. S., & Lonsdale, D. (2013). A corpus-based assessment of French CEFR lexical content.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69(4), 436-461.
- Laufer, B. (1989). What percentage of text lexis is essential for comprehension?. In C. Lauren & M. Nordman (Eds.), *Special language: From humans thinking to thinking machines*.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316-323.
- Le Pesant, D. & Mathieu-Colas, M. (1998). Introduction aux classes d'objets. *Langages*, 131, 17-23.
- Lee, K. H. (2012). *Les classes d'objets dans le domaine militaire : étude contrastive français-coréen* (thèse de Doctorat). LDI-Université Paris 13.
- Lee, S. H. (2001). *Les classes d'objets d'événements. Pour une typologie sémantique des noms prédicatifs d'événement en français* (thèse de Doctorat). LLI-Université Paris 13.
- Lee, S. H. (2017). Le lexique-grammaire et les classes d'objets: Un aspect contemporain de la linguistique structurale. *Études De Langue et Littérature Françaises*, 109, 257-279.
- Lee, S. H., & Ko, K. (2019). Une grammaire du vocabulaire de base et une ontologie des situations de son usage en vue de l'enseignement et de l'évaluation du français. *La Revue de l'étude de la culture française*, 43, 105-135.
- Liria, P., & Sigé, J. (2005). *Les clés du nouveau DELF A1*. Editions Maison des Langues.
- Liu, N., & Nation, I. S. P. (1985). Factors affecting guessing vocabulary in context. *RELC Journal*, 16(1), 33-42.
- Lonsdale, D., & Le Bras, Y. (2009). *A Frequency dictionary of French: Core vocabulary for learners*. Routledge.
- Mathieu-Colas M., André J. Cl., Buvet P. A. et Girardin Ch. (1998). *Les marques de domaines dans les dictionnaires électroniques. Année 1998-Rapport technique n° 1*. LLI, Univ. Paris 13.
- Mathieu-Colas, M. (2006). Les classes de verbes: Syntaxe et sémantique. In J. Bacha et S. Mejri. *Le traitement du lexique. Categorisation et Actualisation*, Nov 2006, Sousse, Tunisia. Université de Sousse (Tunisie) et Université Paris 13, 10-24.
- Mous, N., & Girardeau, B. (2010). *Réussir le DELF A1*. Les Editions Didier.
- Rosen, É. (2009). Quelle(s) évolutions(s) pour le CEC? Le CECR à l'heure de la contextualisation. *Dialogues et Cultures*, 54, 29-32.
- Rosen, É., & Robert, J.-P. (2010). *Dictionnaire pratique du CECR*. Paris, Ophrys.
- Seoul National University French Textbook Compilation Committee. (2013). *Le Français élémentair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Thomas, E. (2008). Les apports du CECRL en cours de langues. *bulletin ADEAF*, 101.
- Veltcheff, C., & Hilton, S. (2006). *Préparation à l'examen du DELF A1*. Hachette.

이성현

교수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E-mail: lsh0717@snu.ac.kr

고길수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E-mail: kilsooko@yahoo.com

접수일자 : 2019. 10. 31

수정본 접수 : 2019. 11. 5

게재결정 : 2019. 12. 4